

28주 영을 분별하라

성실은 수다쟁이에게 진정한 은혜가 있는지 그 여부를 살피는 작업을 한다. 이런 작업을 '심령을 살피다 (Searching heart)' 라고 부른다. 영혼을 깨우치고 치료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성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구별에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크리스천 말과 행동은 영혼과 육체가 다른 것처럼 정말로 별개의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신이 시체와 같듯이, 말만 홀로 있는 것 역시 시체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정신은 실천적인 것입니다.¹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약 1:27). 이 수다쟁이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듣는 것과 말하는 것으로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단지 씨를 뿌리는 것이며, 말하는 것만으로는 진실로 마음과 삶 가운데 열매가 있다고 증명하기에 불충분합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열매로서 각자 심판받는다를 것을 우리 스스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마 13:25).² 그날에 "당신은 믿었습니까?"라고 질문받지 않고 "당신은 행하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말만 하는 자였습니까?"라고 질문받고,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추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추수 때 사람들은 오로지 열매에 관심을 둡니다.³ 믿음에 속하지 않은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당신에게 수다쟁이의 고백이 마지막 날에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모세가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 생각납니다(레 11장; 신 14장).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정결한 짐승이며, 굽만 갈라졌거나 새김질만 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토끼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는 진실로 수다쟁이를 닮았습니다. 그는 지식을 찾고 구하면서 말씀을 새김질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김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개 혹은 곰의 발처럼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다쟁이는 토끼와 같이 부정한 자입니다.⁴

크리스천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당신이 그 본문들에서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구절들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라고 부르면서 이것에 대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낸다"라고 했습니다(고전 14:7). 생명이 없다는 것은 진실한 믿음과 복음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⁵ 따라서 그들의 이야기가 천사의 말과 음성 같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다면, 하늘에 있는 생명의 자녀들 가운데서 결코 함께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성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와 동행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그가 넉덜머리가 납니다. 그를 어떻게 떨쳐 버리지요?

크리스천 저의 충고를 받아들여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돌이키지 않는 한 그는 곧 자신의 동행자에게 싫증 낼 것입니다.

성실 저보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크리스천 자, 그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능력에 대해 심각하게 대화하십시오⁶ 그리고 (그는 분명 동의할 것입니다) 그에게 단순히 이런 종교의 능력이 그의 마음과 집, 혹은 대화에 있는지 여쭙어 보십시오.

성실 (성실은 다시 수다쟁이에게 다가갔다) 그래,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수다쟁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했더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습니다.

성실 원하시면,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을 맡기셨으니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⁷

수다쟁이 종교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말씀이군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기꺼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하자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일할 때 그것은 죄에 대항해 부르짖게 합니다. 둘째로.....

성실 아닙니다. 잠깐만요. 우선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은혜는 영혼이 죄를 혐오하도록 만들어서 스스로를 나타냅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수다쟁이 아니, 죄에 대항해 부르짖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실 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의 정책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미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반감에 의하지 않고서는 죄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⁸

저는 강단에서 죄에 대항해 부르짖는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마음과 집과 대화를 통해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주인의 부인은 마치 자신이 매우 거룩한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으나, 그녀는 요셉과 부정한 짓을 범하려고 했습니다(창 39:15). 어떤 이가 죄에 대해서 외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무릎에 있는 아이에게 "허튼 계집이다. 품행이 나쁘다"라고 소리 지르다가, 다시 아이를 껴안고 입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⁹

수다쟁이 내가 보기에 당신은 울가미를 놓고 있습니다.

성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고자 했던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작용의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수다쟁이 복음의 신비에 대한 많은 지식입니다.

성실 그 표식이 첫 번째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든지 마지막이든지,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비밀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에 은혜의 작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고전 13장).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많은 지식은 있지만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¹⁰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아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추가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복되다고 하지 않으시고 행하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가 있듯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에게 천사와 같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¹¹ 따라서 당신이 말한 표식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로 수다쟁이나 자랑을 좋아하는 자들은 아는 것을 자신의 만족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없어야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마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¹² 따라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사색하는

것만으로 머물러 있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은혜의 믿음과 사랑이 동반된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은 사람에게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13** 전자는 수다쟁이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후자가 없이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시 119:34).

수다쟁이— 당신은 또다시 나에게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Q&A>

1. 진정한 구원의 믿음은 항상 무엇을 동반합니까? (롬 1:5)
2. 신앙고백의 진정성은 무엇으로 확인됩니까? (벰후 1:8-9)
3. 수다쟁이의 특징은 고백은 있지만 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행위를 동반하지 않은 고백만을 하던 자들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마 7:19-22)
4.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떤 자들입니까? (약 2:16-17)
5. 복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변화된 영혼에게 나타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고후 5:17)
6.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무엇이 나타나야 합니까? (벰후 1:3; 답후 3:5)

7. 성실의 질문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까? (고전 6:11)
8. 죄를 아는 것 혹은 인정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막 6:20)
9. 죄를 알지만 죄에 대해 느슨한 태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줍니까? (삼상 2:22-25, 29)
10. 하나님 말씀의 지식은 있지만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눅 10:26)
11.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이는 구원받은 상태입니까? (요일 2:4)
12.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롬 10:2)
13. 구원의 지식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살전 1:3, 5)